

전기전자/가전

가을 스마트폰 대전, 관전 포인트

전기전자 Analyst 김지산 02) 3787-4862 jisan@kiwoom.com
RA 홍정표 02) 3787-5179 jphong@kiwoom.com

-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 전략 모델 공개에 따라 4분기 스마트폰 시장 격돌 예고, 관전 포인트는 첫째, 아이폰 5의 판매 성과 및 주요 부품의 생산 차질 해소 여부, 둘째, 2nd Tier 업체 중 경쟁력 회복 가능성 진단, 셋째, Windows Phone 8의 성공적 안착 여부, 넷째, Unbreakable AMOLED의 성공적 출시 및 시장 반응, 다섯째, 하드웨어 사양 경쟁의 추가적인 차별화 포인트 등

- LG전자 투자 매력 높은 시점

4분기 스마트폰 시장 격돌 예고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일제히 전략 모델을 선보임에 따라 4분기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Apple의 아이폰 5,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2, LG전자의 옵티머스 G, Nokia의 Lumia 920, Motorola의 RAZR M 등이 해당된다.

이들 모델을 통해 하드웨어 사양은 Quad Core Processor, 1,300만 화소 카메라모듈, 2,000mAh 이상 배터리, 4.3" 이상 대화면 및 1280x768급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등으로 진화했고, Unbreakable AMOLED, 메탈 소재, 무선충전 기능 등이 실험적으로 채택됐다.

관전 포인트

가을 스마트폰 대전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첫째, 아이폰 5의 판매 성과 및 주요 부품의 생산 차질 해소 여부,

둘째, 2nd Tier 업체 중 경쟁력 회복 가능성 진단,

셋째, Windows Phone 8의 성공적 안착 여부,

넷째, Unbreakable AMOLED의 성공적 출시 및 시장 반응,

다섯째, 하드웨어 사양 경쟁의 추가적인 차별화 포인트 등이 될 것이다.

LG전자 투자 매력 높아

이에 대해 아이폰 5의 판매 성과는 In-Cell 방식 LCD 패널의 생산 차질, 차별화 요인 미흡으로 인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2nd Tier 업체 중에서는 Android 진영 내 하드웨어 및 LTE 경쟁력이 앞서는 LG전자의 경쟁력 회복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Windows Phone 8은 Ecosystem의 활성화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완만한 속도로 확산될 것이고, Unbreakable AMOLED가 깨지지 않는 특성과 더불어 두께와 무게 측면의 장점을 바탕으로 Killer Application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는 LG전자의 투자 매력이 높은 시점이다. 옵티머스 G의 출하 성과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

- 당사는 9월 16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Apple,
아이폰 5 공개
혁신성 희석**

먼저,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공개한 4분기 전략 모델의 사양을 점검해 보자.

Apple은 얇고 길어지고 LTE를 지원하는 아이폰 5를 공개했다. 하지만, 차별화 요인이 부족하고, 혁신성이 희석됐다는 평가가 다수를 이룬다.

아이폰 4S와 비교할 때 디스플레이 크기가 3.5"에서 4"로 커졌고, In-Cell 방식 LCD 채용으로 단 말기의 두께와 무게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A6 Processor를 탑재해 처리속도가 2배로 빨라졌고, LTE를 지원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소재 측면에서는 유리 and 알루미늄을 활용한 투톤 컬러를 구현한 것이 인상적이다. 사양은 상향됐는데, 아이폰 4S와 동일한 가격 정책을 책정했다.

반면, 전체적인 디자인은 큰 변화가 없고, 디스플레이 크기 및 해상도, 배터리 용량, 카메라 화소, RAM 용량 등에 있어서는 경쟁사들의 최신 모델보다 뒤쳐진다. 당초 기대됐던 무선충전기능, NFC 기능, 생체인식(지문인식) 보안기능 등도 채택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로 대응
Unbreakable 파생 모델
주목**

삼성전자의 4분기 실질적 전략 모델은 갤럭시 노트2가 될 것이다.

갤럭시 S3는 공격적 마케팅 정책을 바탕으로 High-end급 영역에서 충분한 물량 효과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4분기 갤럭시 S3와 갤럭시 노트2의 출하량은 각각 1,900만대, 700만대로 추정된다.

갤럭시 노트2는 5.5" 대화면, Bezel 최소화, S펜 성능 강화 등을 특징으로 하며, 1.6GHz Quad Core Processor, Android 4.1 Jelly Bean, 2GB RAM, HD Super AMOLED, 3,100mAh 배터리 등 최고급 사양을 갖췄다.

갤럭시 노트2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업계 최초로 Unbreakable AMOLED를 채택한 파생 모델이 연말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LG전자,
옵티머스 G 공개
하드웨어 사양 업계
최고 수준**

LG전자는 Premium급 전략 스마트폰인 ‘옵티머스 G’를 공개했다.

옵티머스 G는 그룹 계열사 역량이 총집결된 모델로서 전략적 의미가 크고, Quad Core LTE를 앞세운 업계 최고 사양이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옵티머스 G에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 변화는 1) 그 동안 LG전자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최신 운영체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력과 이로 인한 슬림형 디자인 구현의 한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주고, 2) 사용자 경험(UX) 측면에서도 ‘라이브 줌’, ‘듀얼 스크린 듀얼 플레이’ 등 차별적 기능으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며, 3) 밝기와 소비전력이 개선된 True HD IPS+ LCD, 커버유리 완전 일체형 터치 기술을 적용한 초슬림 두께 및 Bezel, 2,100mAh 배터리, 1,300만 화소 카메라 등 계열사와 협업을 통해 업계 최초이자 최고의 하드웨어 사양을 구현했고, 4) 한국의 통신 3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신사업자 대상 출시 계획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지역별 출시 계획은 한국은 9월에 SKT, KT, LG U+ 등 3사 모두를 대상으로, 북미는 10월경에 AT&T와 Sprint 대상으로, 일본은 10월경에 NTT Docomo와 KDDI 대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보급형이었던 옵티머스 원과 옵티머스 LTE Tag 이외에 Premium급으로서는 글로벌 출시 계획을 갖춘 첫번째 모델이다.

아이폰 5가 출시되더라도 국내 시장에 LTE 버전으로 출시되는 것은 빨라야 11월이 될 것이다.

적어도 내수 시장에서는 옵티머스 G가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Nokia,
Windows Phone 8 공개
판매 계획 불확실성 남겨**

Nokia는 사활이 걸린 윈도우폰을 선보였지만 시장은 실망했다.

동사는 Microsoft의 새로운 운영체제인 Windows Phone 8을 탑재한 Lumia 920과 Lumia 820을 공개했다. High-end급인 Lumia 920은 4.5" IPS LCD, 870만 화소 카메라, 2,000mAh 배터리 등의 사양을 갖췄다. 이 외에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장갑 낀 상태에서도 화면 조작이 가능한 고감도 터치 방식과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적이고, 콘텐츠 측면에서는 무제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음성안내 내비게이션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신모델 발표 후 급락한 주가가 말해주듯 시장 반응은 냉랭했다.

구체적인 판매 시기, 가격, 통신사업자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남겼다.

또한 하드웨어 사양 면에서도 Dual Core Processor, 1GB RAM 등을 채택했는데, 경쟁 업체들이 Quad Core Processor, 2GB RAM 등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열등한 수준이다.

**Motorola,
RAZR M 등 3개 모델
공개
모두 Verizon 통해 출시**

Motorola Mobility는 Google에게 피인수가 완료된 이후 첫 전략 모델을 선보였다.

RAZR M, RAZR HD, RAZR MAXX HD 등 3개 모델이다.

RAZR M은 4.3" Super AMOLED를 탑재했고, Narrow Bezel을 특징으로 내세웠다. RAZR HD와 RAZR MAXX HD는 둘 다 4.7" HD LCD를 채택했고, 강화된 배터리 성능을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RAZR HD의 배터리 용량은 24시간, RAZR MAXX HD는 32시간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3개 모델 모두 미국 Verizon을 통해 LTE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출시될 RAZR M은 2년 약정 99.99달러의 보급형 가격대에 판매될 예정이다.

Google의 자회사답게 Google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구현한 점이 두드러진다. Chrome 브라우저, Google Play, Google Maps, Voice Actions for Android, Google+, YouTube, Android OS 4.0 Ice cream Sandwich 등을 탑재했다.

다만, Motorola의 전략 모델들은 Premium급이라기 보다는 보급형에 가까운 LTE폰으로 Positioning 될 것이다. 갤럭시 노트2, 옵티머스 G와 비교하면 사양 경쟁에서 밀린다.

Google이 Motorola Mobility를 인수한 궁극적인 목적도 특허 방어력 보강과 더불어 Android의 저변 확대를 위한 보급 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Apple 아이폰 5 사양

	Application Processor	Dual Core, ARM Cortex 15 기반 A6 Processor	카메라	800만 화소
	디스플레이	4" Retina LCD (1136x640)	배터리용량	1,500mAh
	OS	iOS6	크기	123.8 x 58.6 x 7.6mm
	RAM	1GB	무게	112g

자료: Apple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 사양

	Application Processor	Quad Core 1.6GHz, Exynos	카메라	800만 화소
	디스플레이	5.5" HD Super AMOLED (1280x720)	배터리용량	3,100mAh
	OS	Android 4.1 Jelly Bean	크기	151.1 x 80.5 x 9.4mm
	RAM	2GB DDR2	무게	180g

자료: 삼성전자

LG전자 옵티머스 G 사양

	Application Processor	Quad Core 1.5GHz, Qualcomm Snapdragon S4 Pro	카메라	1,300만 화소
	디스플레이	4.7" True HD IPS+ (1280x768)	배터리용량	2,100mAh
	OS	Android 4.0 Ice cream Sandwich	크기	131.9 x 68.9 x 8.45mm
	RAM	2GB DDR2	무게	145g

자료: LG전자

Nokia Lumia 920 사양



Application Processor	Dual Core 1.5GHz, Qualcomm Snapdragon S4	카메라	870만 화소
디스플레이	4.5" PureMotion HD+ LCD (1280x768)	배터리용량	2,000mAh
OS	Windows Phone 8	크기	130.3 x 70.8 x 10.7mm
Memory	1,000MB(Internal)	무게	185g

자료: Nokia

Motorola RAZR M 사양



디스플레이	4.3" Super AMOLED	카메라	880만 화소
OS	Android 4.0 Ice cream Sandwich(Jelly Bean으로 업그레이드 예정)	배터리용량	20시간
크기	122.5 x 60.9 x 8.3mm	기타	내구성 강화: 스크래치 방지 Corning Gorilla Glass, DuPont KEVLAR 섬유, 항공기급 알루미늄 소재

자료: Motorola

스마트폰 대전
관전 포인트

앞서 언급한 대로 가을 스마트폰 대전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첫째, 아이폰 5의 판매 성과 및 주요 부품의 생산 차질 해소 여부, 둘째, 2nd Tier 업체 중 경쟁력 회복 가능성 진단, 셋째, Windows Phone 8의 성공적 안착 여부, 넷째, Unbreakable AMOLED의 성공적 출시 및 시장 반응, 다섯째, 하드웨어 사양 경쟁의 추가적인 차별화 포인트 등이 될 것이다.

첫째, 아이폰 5 판매
성과 및 주요 부품의
생산 차질 해소 여부

관전 포인트에 대해 부연 설명 해보자.

무엇보다도 아이폰 5의 판매 성과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Apple의 시장 지배력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스마트폰의 차별화 요인이 희석되면서 2nd Tier 업체들도 입지를 회복하느냐의 변곡점에 있다.

아이폰 5가 시장의 기대보다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는 하드웨어 및 사용자 경험(UX)의 상향 평준화에 따라 차별화 요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선두권 업체들의 부가가치 Premium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피쳐폰 시절처럼 원가 관리, SCM, 통신사업자 대상 Customizing 능력 등이 중요한 경쟁 요인으로 부각되게 된다.

미국 Wall Street에서는 출시 첫 주에 1,000만대가 판매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아이폰 5의 온라인 사전 예약이 1시간 만에 매진됐고, 이로 인해 배송이 2주일 지연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당사 리서치센터는 4분기 아이폰 5 판매량이 2,500만대를 하회하고, 아이폰 전체 판매량도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4,000만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In-Cell 방식 LCD 패널의 생산 차질이 지속되고 있고, 아이폰 5의 차별화 요인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기반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폰 5 부품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Apple Vendor들은 3분기 실적 가이드를 낮추고 있다.

오히려 변수는 아이폰 5보다 아이폰 4S가 될 수 있다. 아이폰 5 출시와 더불어 아이폰 4S의 가격을 99달러(16GB 2년 약정)로 인하했고, 매력적인 가격으로 인식될 수 있다.

둘째, 2nd Tier 업체 중 경쟁력 회복 가능성 진단

2nd Tier 업체들 중에서는 LG전자의 경쟁력 회복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2nd Tier의 회복은 Apple의 지배력 약화를 일부 전제로 한 것이다. 그 동안 Apple과 삼성전자의 양강 구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통신사업자들은 ‘갑’으로서 입지가 약화됐고,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해 줄 제 3의 업체를 모색해 왔다. 대안은 Ecosystem이 가장 활성화돼 있으면서 보조금을 분담해주고, 시기별 다양한 가격대의 스마트폰을 제공해주며, LTE로의 진화를 주도하고 있는 Android 진영에 있을 수밖에 없다. Android 진영 내 2nd Tier 중에서 LG전자는 하드웨어 및 LTE 경쟁력에서 앞선다.

LG전자는 옵티머스 G를 통해 업계 선두권의 하드웨어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에서 계열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옵티머스 G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점은 4분기 100만대 판매 여부가 될 듯하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1분기 3.4%에서 2분기는 3.8%로 상승했고, LTE폰 점유율은 같은 기간 13%에서 15%로 상승했다.

셋째, Windows Phone 8 의 성공적 안착 여부

Apple과 삼성전자 및 Android 진영 간의 특허 대립 심화로 인해 윈도우폰이 제 3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User Interface가 확연하게 바뀐 Windows Phone 8에 대한 시장 반응이 긍정적이면 OS 다변화를 바탕으로 스마트폰의 경쟁 구도가 바뀔 수 있다. Nokia Lumia 시리즈의 성공 여부를 주목하는 이유다. Lumia 920은 11월부터 유럽에서 판매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윈도우폰은 늘상 미약한 Ecosystem이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Windows Phone 7도 OS의 성능이나 혁신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윈도우폰의 성공은 Nokia 이외의 다수의 스마트폰 업체들의 시장 참여, Application 개발 진영의 활성화, Killer Application의 확대를 수반해야 한다. 따라서 윈도우폰은 분명 제 3의 OS로 자리잡아 가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이다.

넷째, Unbreakable AMOLED의 성공적 출시 및 시장 반응

Unbreakable AMOLED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이다. Apple은 다소 성급해 보이는 In-Cell 터치 방식의 LCD를 채택해 두께와 무게를 상당히 줄였다. 양산성에서 일부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선보일 Unbreakable Plane AMOLED는 깨지지 않는 특성과 더불어 두께와 무게 측면에서 더욱 큰 장점을 보여 줄 것이다. 일반 AMOLED 패널 대비로도 두께가 80%, 무게가 60%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Bendable 단계 이후의 본격적인 Flexible 디스플레이 시대를 예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2의 파생 모델을 통해 차별화 마케팅에 성공한다면 후속 전략 모델인 갤럭시 S4에도 전격 채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Unbreakable AMOLED의 출현과 함께 수혜를 받는 제품은 터치 패널이고, 인터플렉스가 주도할 전망이다. Unbreakable AMOLED 패널은 봉지 글라스가 박막으로 바뀌기 때문에, 터치 패널도 기존 On-Cell 방식이 아닌 ITO 필름 방식으로 바뀔 것이고, SMD가 외주 조달하는 형태로 시장이 개방될 것이다. 인터플렉스는 ITO 필름 한 장에 Sputtering과 Etching 공정으로 센서 전극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다섯째, 하드웨어 사양 경쟁의 차별화 포인트

하반기 전략 모델들의 사양을 통해 하드웨어의 진화 Roadmap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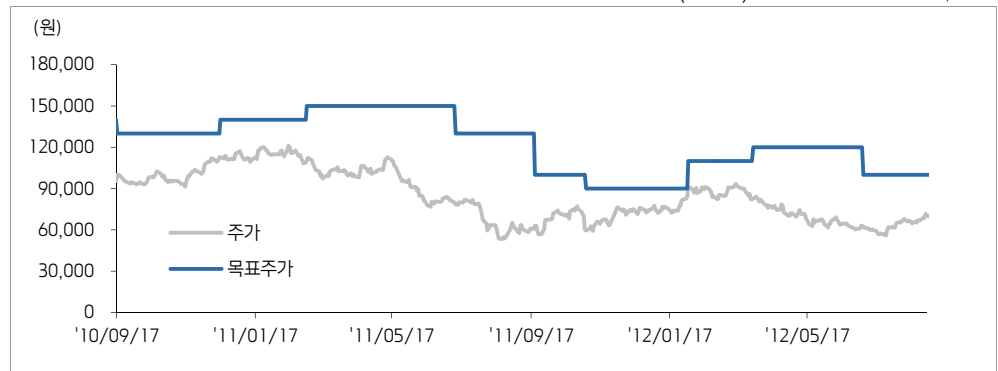
Application Processor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Quad Core Processor를 채택했고, 카메라모듈은 LG전자가 1,300만 화소를 대량 생산 모델에 처음으로 채택했으며, 배터리 용량은 삼성전자, LG전자, Nokia가 2,000mAh 이상을 구현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Apple을 제외하면 모두 4.3" 이상 대 화면을 전략 모델로 내세우고, 해상도는 1280x768급을 실현했다.

여기에 Unbreakable AMOLED, 메탈 소재, 무선충전 기능 등이 실험적으로 채택됐다. 내년에는 이러한 사양이 주류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하드웨어의 진화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현존 기술에서 최고 수준이 구현되고 있고, 인간의 오감이 느낄 수 있는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Application Processor의 경우 PC도 여전히 Quad Core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시간을 두고 PC처럼 Hexa Core로 진화할 것이다. 카메라모듈의 경우 디지털 카메라(컴팩트 카메라)의 주류인 1,600만 화소에 근접해 있다. 1,300만 화소 모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매우 제한적이다. 배터리는 4" 대 디스플레이에서 최대 구현 가능한 용량이 2,400~2,500mAh 정도로 알려져 있다.

투자의견 변동내역 (2개년) 및 목표주가 추이

종목명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LG전자 (066570)	2010/09/17	BUY(Maintain)	130,000원
	2010/10/29	BUY(Maintain)	130,000원
	2010/11/15	BUY(Maintain)	130,000원
	2010/11/18	BUY(Maintain)	130,000원
	2010/12/17	BUY(Maintain)	140,000원
	2011/01/12	BUY(Maintain)	140,000원
	2011/01/27	BUY(Maintain)	140,000원
	2011/02/14	BUY(Maintain)	140,000원
	2011/03/03	BUY(Maintain)	150,000원
	2011/03/24	BUY(Maintain)	150,000원
	2011/04/28	BUY(Maintain)	150,000원
	2011/05/11	BUY(Maintain)	150,000원
	2011/07/12	BUY(Maintain)	130,000원
	2011/07/15	BUY(Maintain)	130,000원
	2011/07/28	BUY(Maintain)	130,000원
	2011/09/20	BUY(Maintain)	100,000원
	2011/10/12	BUY(Maintain)	100,000원
	2011/10/27	BUY(Maintain)	100,000원
	2011/11/04	BUY(Maintain)	90,000원
	2011/11/07	BUY(Maintain)	90,000원
	2011/11/21	BUY(Maintain)	90,000원
	2012/01/12	BUY(Maintain)	90,000원
	2012/02/02	BUY(Maintain)	110,000원
	2012/02/27	BUY(Maintain)	110,000원
	2012/03/28	BUY(Maintain)	110,000원
	2012/03/30	BUY(Maintain)	120,000원
	2012/04/09	BUY(Maintain)	120,000원
	2012/04/26	BUY(Maintain)	120,000원
	2012/05/21	BUY(Maintain)	120,000원
	2012/06/04	BUY(Maintain)	120,000원
	2012/07/06	BUY(Maintain)	100,000원
	2012/07/26	BUY(Maintain)	100,000원
	2012/08/14	BUY(Maintain)	100,000원
	2012/08/30	BUY(Maintain)	100,000원
	2012/09/17	BUY(Maintain)	100,000원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주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주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 -10% 주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 -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기준(6개월)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